

환경정의에 관한 충북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인식 연구

강영복* · 송영미**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part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ungbuk District

Young-Park Kang* · Young-Mi Song**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환경 정의(正義)적 의식을 확산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부정의(不正義)가 없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중·고등 학생의 환경 정의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청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2002년 7월 8일~7월 2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학생의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환경 피해 제외자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환경정의론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인식에 있어서 학생들은 노약자 등 저항력이 약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주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이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환경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았다. 이상의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사례와 갈등 상황을 가급적 많이 제시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환경 피해를 보는 시각을 넓혀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실천적인 환경지식을 함양하여 환경부정의나 환경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방향제시 등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환경정의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자연과 생명 공동체가 함께 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어 : 환경, 환경정의(環境正義), 환경부정의(環境不正義)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ungbuk district. The survey was done using questionnaires in 2002, and the subjects were 548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nvironmental recognition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is low.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was related to sex, grade, regional character. This study suggest as follows: We teachers should suggest damage cases and conflict situations in actual life as many as possible. Our education should broaden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damage and provide practical knowledge of environment so as to poster the competence to criticise and suggest positive alternatives to environmental injustice and environmental inequality.

Key words : environment,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inequality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환경교육전공(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현재 우리는 심각한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환경위기를 각성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조차도 환경문제 해결의 실천방향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채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는 흔히 자연경관의 훼손이나 동식물의 포획으로 인한 소멸과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과 같은 자연 그 자체의 문제 또는 자원의 총량적 부족이나 고갈 그리고 지역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나 정책들은 주로 일반적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도시 및 농촌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그 속에서도 경제·사회적으로 능력이 없는 계층과 지역에서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인간이 인간 이외의 자연과 동식물 등 생명체를 착취하고 포획함으로써 초래되기도 한다. 환경을 파괴하고 그 피해를 입는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에 노출되는 정도 등은 계급문제와 빈부간의 문제, 인종문제, 여성문제, 남북문제, 심지어 인간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문제와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다.

환경문제에 내재된 계층 및 사회 공간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 또는 무시해왔다. 권력층과 부유층 그리고 선진 국가들은 환경자원의 과다한 이용을 통하여 많은 혜택과 편익을 얻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경오염의 통제에서 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빈곤 계층이나 개발 도상 국가들은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하위계층 또는 빈곤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과 생활에 기본적인 자원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들은 능력 있는 상위계층 또는 부유층 주민들에 의한 자원 이용이나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자신의 경제·정치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떤 계층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환경자원들을 확보할 수 없거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들은 심각한 위화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아울러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표출하게 될 것이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치적 문제이자 사회 계층간의 불평등한 문제로 그 대안적 해결 방안들은 환경정의론적 입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들은 단순히 환경의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 관련되어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관심을 가지며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동안 환경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왔지만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피해를 주는 정도가 소득, 능력, 건강 등이 다른 사람 및 계층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이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여성들과 노약자들이 직접적인 피해 대상자가 되는 이른바 부자가 환경을 파괴하고 가난한자가 환경 피해를 입는 불평등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실천방향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간 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잣대로 가능한 것이 바로 환경정의의 시작이다.

본 연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또 이에 노출될 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빈부간,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노인 및 어린이, 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 및 노약자들이 환경 피해를 더 심하게 받고 있는 현실을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환경정의적 의식을 확산시켜 환경문제 해결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환경정의의 개념

환경정의(環境正義, Environmental Justice)란 환경문제를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관련시켜서 환경과 개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하며 환경정의 사상의 전제는 개인의 존엄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민주주의의 정의개념이다. 이러한 환경정의에 대한 개념은 1991년 이후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환경정의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적 재화나 환경피해가 사회적·시간·공간적으로 불공

평하게 분배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면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환경보전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의를 정의(正義)의 시각에서 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되 “문화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함께 존중하고 숭상하며, 분배적 정의가 두루 확산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Bryant, 1995). 환경에 관련된 사회 제도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곧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환경정의란 환경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환경정의의 개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였다. 즉 기존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달리 정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의 눈으로 정의를 재구성함으로써 당면한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하였다(황산성, 1999). 환경정의란 환경 문제가 인종과 계급, 성(性)에 근거하여 차별을 낳는 권력 및 기회 불평등으로 인해 어떤 사회집단이 지속적으로 특권을 유지하게 되는 사회 생산기제에 도전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환경정의를 사회정의와 마찬가지로 주로 이익과 부담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는데 이는 자원 사용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Wenz, 1998). 사회 내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인 정의의 시각을 환경을 배경으로 설정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간 사이에 작용하는 문제로 환경정의를 확대 적용하기도 한다. 환경정의란 인간 활동 전체에서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구적 차원에서 또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관점에서 서서 환경에서 얻는 편익(환경자원의 향유)과 환경파괴의 피해에 공평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사상으로 보고 있다(토다기요시, 1996; 조명래, 2000a, 2000b).

이상의 환경정의에 관한 개념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를 하고자한다.

환경정의는 환경문제가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연관되어 환경 피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환경불평등이나 환경 불이익을 시정하는 실천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환경정의란 지구환

경을 이용해서 얻는 혜택과 책임은 전 지구인의 몫이므로 국가, 계층, 그리고 세대간의 공평한 이용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는 정신임과 동시에 환경 피해의 차별을 없애고 환경의 이용과 보존에서 현재의 인간과 미래 세대의 인간, 인간이외의 생명체(동식물)들과의 공평한 혜택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다(최병두, 1995, 1997).

2. 환경정의론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의식

환경정의론적 시각의 대두는 1990년대 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소수민족과 빈곤한 지역사회가 환경위험을 불균형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처방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시작되었다(조명래, 2001). 이는 유해폐기물 투기지역에 흑인과 인디언 유색인종 그리고 이민자 주거지역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매립장도 흔히 소수민족 거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백인 및 부유층들이 배출한 유해폐기물을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버리는 것이어서 사회정의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 대도시 지역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지역에는 흑인 및 소수민족이 예외 없이 거주하고 있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미국의 유색 인종 관련 환경 운동 단체들은 1991년 10월 워싱턴에서 ‘전국 유색인 환경 지도자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환경정의의 원칙(principle of environmental justice)’을 운동의 새로운 원칙으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하여 중·상류 계급과 백인들이 이끌던 자연 보전 중심의 미국 환경 운동판에 유색 인종의 동참으로 이끌어지는 환경정의 운동, 즉 사회적 불평등과 연관된 환경 운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Wenz, 1988; Bryant, 1995; 권해수, 1999; 조명래, 2000a). 종래의 인식에서 환경 문제는 자연 환경 파괴나 환경 오염 등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성격 규정에서도 자연과학적이거나 공학적인 것으로 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환경문제는 자연 과학적 및 공학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사실 및 윤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 특징이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의 해결은 유색 인종이나 빈민 주거지역 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환경 부정의(環境 不正義, environmental injustice)의 문제를 대

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고재경, 1997; 이상돈, 1998; 전병선, 1999). 그에 따라 정부 정책의 프로그램과 수단을 새롭게 강구하고 기존 환경 정책이 자연 환경의 관리나 공해의 공학적 처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환경정의론의 시각을 취하는 정책은 사회적 맥락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과 결부된 '환경 불평등'이나 '환경 불이익'을 시정하는 '환경복지(environmental welfare)'적 처방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정의에 관한 규범적인 쟁점을 현실 정책 프로그램 속으로 도입하는 것도 환경정의론적 정책의 주요 특징이 되고 있다(최병두, 1999).

우리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럽 및 미국과는 다르며 사회적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 정책적인 배려가 환경정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정책은 없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균등 문제를 시정하고자한 정책적 노력은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왔다. 환경정의는 일찍이 한국공간환경학회의 몇몇 소장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현실 문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경정의시민연대란 시민 단체 내에 '환경정의포럼'이 발족하면서부터이다(환경정의포럼, 1999; 한민회, 1999). 국내에서 환경정의는 아직까지는 개념적 이해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의를 통해 환경정의 문제를 현실 환경 문제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려는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대희, 1997; 이상현, 2000; 전재경, 2001). 환경 관련 시민운동도 환경영역에만 한정되어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렇다할 환경정의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균등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에 따라 환경오염의 피해가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 소득은 분진농도와 반비례하며 환경오염인지도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높다. 분진정도가 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환경오염보다는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서 환경 보존에 관심을 갖고 비용을 들일 수가 없어서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서우석, 1991).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과 대기오염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은 소득에 따라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는데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주민의 소득 수준은 낮았다(양장일, 1992).

이상과 같이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볼 때 많은 환경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인공이 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정의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환경 부정의(不正義)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 불평등의 현실을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관련 변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점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들의 환경정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관련 변인에 따른 환경정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조사 대상은 충북지역 중·고등학생 548명으로, 환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역 학생들이 고르게 표집되었다. 환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는 청주시 중·고등 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환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는 용화 온천으로 인하여 환경 분쟁이 있었던 괴산군 읍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6명, 금광 개발로 인하여 현재 환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음성군 읍 지역의 중·고등 학생 130명, 농공단지 조성으로 환경 갈등이 일고 있는 진천군 면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질문지는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환경에 대한 인식, 환경정의에 대한 의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환경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개인관련 특성과 부모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개인관련 특성은 성별, 학년, 가정형편, 거주지 형태, 학업성적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부모 관련 특성으로는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환경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주로 성장한곳, 환경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주로 제공받는 곳, 환경 수업을 받은 유무, 거주지의 특성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환경정의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개념에 대한 인식 5개 문항, 환경문제 인식 10개 문항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환경정의에 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그렇다에 4점, 그저 그렇다에 3점, 그렇지 않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정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청주시 중학교 3학년 남, 녀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70부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

완하여 확정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7월 8일~7월 20일 사이에 실시하여 부실 기재된 6부를 제외한 548부가 최종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PC⁺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Multifl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환경정의에 대한 인식

1) 환경정의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

환경정의 의식은 환경정의개념에 대한 인식과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정의론적 인식으로 나누어 분석

Table 1. General trend on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구 분	평균	SD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	어떠한 환경오염에서도 환경피해 제외자가 있다(환경피해 제외자 인식).	1.84	0.97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사회가 불공평하다(환경피해 불공평).	3.63	1.12
	값비싼 의류를 만들거나 화장품, 의약품등의 안전성 실험대상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동물 생명존중).	4.05	0.92
	국토개발이 미래세대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도 있다(미래세대 권리존중).	3.84	0.90
	환경적으로 공평한 사회, 동물생명의 존엄성 미래세대가 환경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을 권리 등을 위해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정의의 사회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환경정의 사회적 일반화).	4.23	0.87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오염피해를 적게 받는다(빈부에 따른 피해차이인식).	2.61	1.23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병약자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건강에 따른 피해차이인식).	4.05	0.91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사람들이 환경오염피해를 적게 받는다(지식과 정보의 양에 따른 피해차이인식).	3.04	1.13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환경 피해를 적게 받는다(권력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	2.99	1.22
	환경 오염 확산 방지에 대한 혜택을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많이 받는다(지역별 피해차이인식).	3.29	0.96
	위락시설(음식점, 콘도, 온천, 골프장)이 있는 지역 주민은 위락시설 이용자보다 환경 피해를 많이 받는다(위락시설주변지역 주민피해정도 인식)	3.70	0.88
	중소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대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환경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근무시설여건에 따른 피해차이 인식)	3.28	0.97
	선진국은 환경오염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공장들은 자기 나라에 설립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중화학 공장은 후진국에 설립하고 있다. 이것은 불공평한 행위이다(선진국의 불공정행위인식).	3.87	1.13

하였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Table 1과 같다.

(1)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

Table 1과 Fig. 1에서와 같이 조사 대상자의 환경 피해 제외자 인식은 1.8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환경 피해 불공평 인식은 3.63으로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된다는 인식은 4.04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값비싼 의류를 만들거나 실험 대상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이 동물의 생명 존중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미래 세대의 권리 인식은 3.84로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환경정의 사회적 일반화에 대해서는 4.23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조사 대상 학생들의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서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는 환경 피해 제외자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 이것은 대중매체나 학교 수업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전 지구인의 위기 의식은 부각시키지만 소득이나 권력을 이용해 환경오염방에 의한 피해를 덜 받거나 피해갈 수 있다는 환경정의적 시각에서의 정보는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환경정의론적 환경 문제 인식

환경정의론적 환경 문제 인식에서는 Table 1과 같

이 빈부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 2.61, 건강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 4.05, 지식과 정보의 양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 3.04, 선진국의 불공정 행위 인식 3.87, 오염 방지 혜택 지역에 따른 차이 인식 3.29, 위락시설 주변 주민 피해 정도 인식 3.70, 근무시설 여건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 3.28, 권력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 2.99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높게 인식하고있는 반면에 소득이 높거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아주 낮았다. 즉 학생들은 환경 피해를 받는 원인이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의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득이나 권력과 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

환경정의 의식에 대해 성별, 학년, 지역특성, 가정형편, 학업성적, 환경 지식 정보 제공처, 환경수업 유무 등의 관련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1)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정의 개념 인식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환경피해 제외자 인식, 환경 피해 불공평, 동물의 생명 존중, 미래세대의 권리 존중, 환경정의 사회적 일반화 필요성으로 나누어 관련 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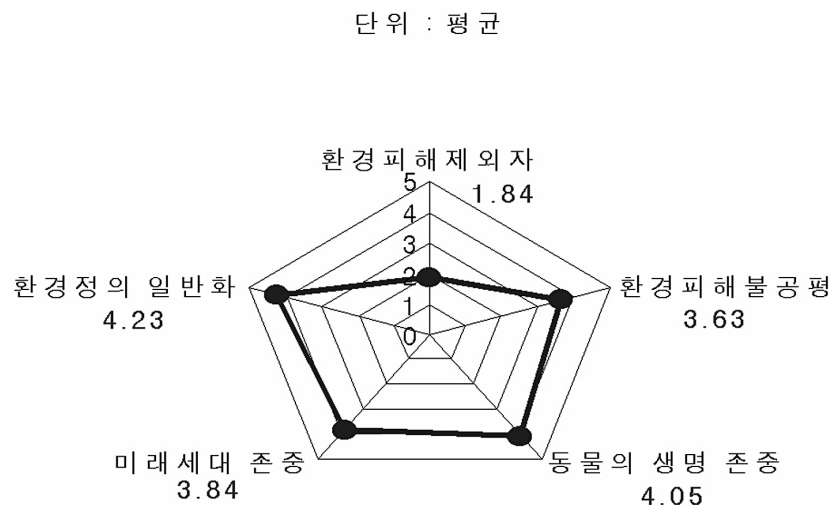


Fig. 1. Recognition o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음과 같다.

환경피해 제외자 인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환경 피해 불공평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같이 학년과 환경 지식 정보 제공처, 환경 수업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2 학생, 대중 매체 및 주변 사람으로부터 환경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 환경 수업을 안 받은 사람의 인식이 높았다.

관련 변수에 따른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은 Table 3과 같이 학년과 환경 수업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중3 학생과 환경 수업을 받은 학생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변수에 따른 미래세대 권리 존중 의식은 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참조). 중3 3.92 고2 3.75로 중3학생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정의 사회적 일반화 필요성 인식은 Table 5와 같다. 성별과 학년을 제외한 변

수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분쟁 지역의 학생, 부유한 학생, 학업 성적이 보통이상인 학생, 환경에 관한 지식 정보를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들로부터 얻는 학생, 환경 수업을 받은 학생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특히 학년, 환경수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Fig. 2, Fig. 3참조)

학년별로 볼 때 중3학생이 동물의 생명존중, 미래세대 권리 존중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일수록 여러 동물과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2학생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사회가 불공평하다는데 대한 인식이 중3학생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고2학생이 환경에 관한 피해 사례나 환경피해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2. Recognition on the environmental inequality

구	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3.63	0.86
	여	275	3.62	
	계	548	3.63	
학년	중3	288	3.45	-3.85***
	고2	260	3.82	
	계	548	3.33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3.68	1.25
	비 분쟁지역	256	3.56	
	계	548	3.62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3.72	0.38
	보통	457	3.62	
	부유한 편	20	3.50	
	계	548	3.63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3.59	0.61
	보통	307	3.62	
	잘하는 편	67	3.76	
	계	548	3.63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3.54	-0.94**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3.65	
	계	548	3.60	
환경수업 유무	유	153	3.57	-1.86**
	무	395	3.76	
	계	548	3.67	

** $p < .01$ *** $p < .001$

Table 3. Recognition on the respect of nonhuman organisms

구	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4.01	-0.97
	여	275	4.09	
	계	548	4.05	
학년	중3	288	4.14	2.23*
	고2	260	3.96	
	계	548	4.05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4.05	-0.04
	비 분쟁지역	256	4.05	
	계	548	4.05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4.10	0.37
	보통	457	4.05	
	부유한 편	20	3.90	
	계	548	4.05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4.11	0.84
	보통	307	4.05	
	잘하는 편	67	3.94	
	계	548	4.05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4.02	-0.51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4.06	
	계	548	4.04	
환경수업 유무	유	153	4.11	2.33*
	무	395	3.91	
	계	548	4.01	

* $p < .05$

Table 4. Recognition on the respect of future generation's rights

구 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3.78	-1.35
	여	275	3.89	
	계	548	3.84	
학년	중3	288	3.92	2.23*
	고2	260	3.75	
	계	548	3.84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3.84	0.09
	비 분쟁지역	256	3.83	
	계	548	3.84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4.10	0.37
	보통	457	4.05	
	부유한 편	20	3.94	
	계	548	4.05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4.11	0.84
	보통	307	4.05	
	잘하는 편	67	3.94	
	계	548	4.05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3.78	-0.85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3.85	
	계	548	3.82	
환경수업 유무	유	153	3.86	1.16
	무	395	3.76	
	계	548	3.81	

* $p < .05$

Table 5.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of social genera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구 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4.21	-0.76
	여	275	4.26	
	계	548	4.24	
학년	중3	288	4.21	-0.72
	고2	260	4.26	
	계	548	4.24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4.12	2.84**
	비 분쟁지역	256	4.33	
	계	548	4.23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4.13	1.88 ab
	보통	457	4.24	
	부유한 편	20	4.55	
	계	548	4.23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4.06	5.10** a
	보통	307	4.30	
	잘하는 편	67	4.36	
	계	548	4.23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4.07	-2.05*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4.28	
	계	548	4.18	
환경수업 유무	유	153	4.28	2.00*
	무	395	4.11	
	계	548	4.20	

* $p < .05$ ** $p < .01$

환경교육은 지구 환경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 경관의 훼손이나 자연생태계

파괴와 지역 환경오염문제 등을 환경문제로 인식해 온 반면 환경문제에 내재된 계층 및 사회적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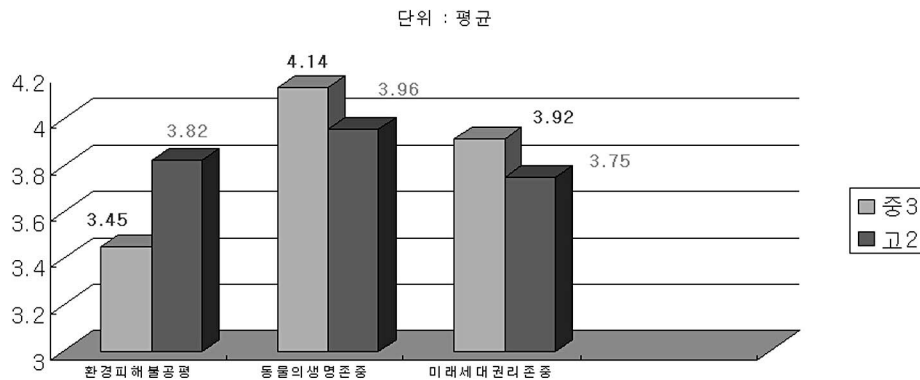


Fig 2. Recognition on the environmental justice depending to 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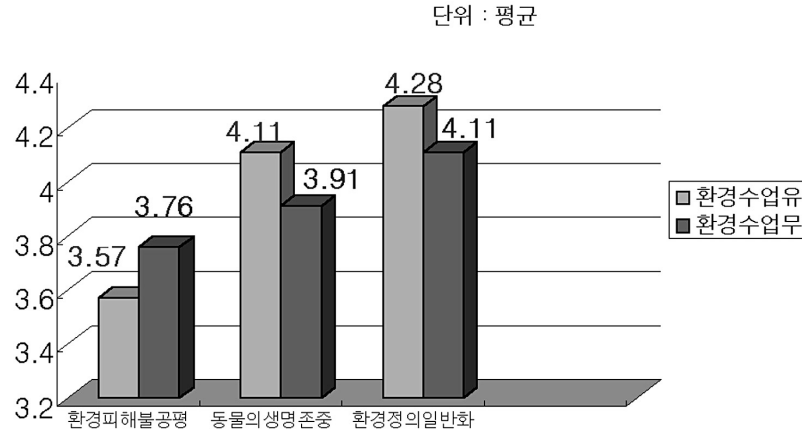


Fig 3. Recognition on environmental justice according to presence and non prese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에 대해서는 간과해왔다. 환경 오염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여성들과 노약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불평등이나 환경 불이익을 시정할 수 있는 기본 의식과 실천 방향에 새롭게 접근하여 환경피해의 차별을 없애고 현재의 인간과 미래세대의 인간, 인간이외의 생명체와의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환경정의적인 의식을 확산시키는 책임을 환경교육에서 해야 할 것이다.

환경 수업 유무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은 환경수업을 받은 학생이 동물생명존중과 환경정의 사회적 일반화에 대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 오염 피해 불공평에 대한 의식은 환경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이 더 높았다(Fig. 3 참조). 이것은 환경수업의 내용이 환경관련 사실위주로 꾸며져 있을 뿐 자연 친화적 가치관과 생명 존중의 세계관을 느끼도록 할 내용을 빠뜨림으로써 환경위기에 처한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인류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데 의식 전환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 인간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

환경정의론적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련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부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은 Table 6과 같이 학

Table 6. Recognition on the distinction of environment damag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구 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2.63	0.32
	여	275	2.59	
	계	548	2.61	
학년	중3	288	2.30	-6.44***
	고2	260	2.95	
	계	548	2.63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2.46	2.69**
	비 분쟁지역	256	2.74	
	계	548	2.60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2.63	0.66
	보통	457	2.62	
	부유한 편	20	2.30	
	계	548	2.61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2.68	1.01
	보통	307	2.54	
	잘하는 편	67	2.71	
	계	548	2.61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2.62	0.07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2.61	
	계	548	2.62	
환경수업 유무	유	153	2.52	-2.87**
	무	395	2.85	
	계	548	2.69	

p< .01 *p< .001

Table 7. Recognition on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al damage depending to health

구 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4.16	2.95**
	여	275	3.93	
	계	548	4.05	
학년	중3	288	3.97	-2.07*
	고2	260	4.13	
	계	548	4.05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3.92	3.16**
	비 분쟁지역	256	4.16	
	계	548	4.04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4.04	0.12
	보통	457	4.05	
	부유한 편	20	3.95	
	계	548	4.05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4.03	0.05
	보통	307	4.05	
	잘하는 편	67	4.07	
	계	548	4.05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3.89	-2.10*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4.09	
	계	548	4.00	
환경수업 유무	유	153	4.03	-0.90
	무	395	4.10	
	계	548	4.65	

* p<.05 ** p< .01

년과 지역특성, 환경수업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2학생, 비 분쟁 지역 학생, 환경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의 인식이 높았다.

건강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은 Table 7과 같이 성별, 학년, 지역특성, 환경 지식 정보 제공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 고2학생, 비 분쟁 지역 학생, 환경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대중매체나 주변 사람에게서 얻는 학생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지식과 정보의 양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은 Table 8과 같다. 성별, 학년, 지역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 고2학생, 비 분쟁 지역에 사는 학생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권력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은 Table 9와 같이 성별, 학년, 지역특성, 환경수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 고2학생, 비 분쟁 지역 학생, 환경수업을 안 받은 학생의 인식도가 더 높았다.

Table 8. Recongnition on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al damage depending to the amount of environmental knowledge and information

구 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3.16	2.35*
	여	275	2.93	
	계	548	3.05	
학년	중3	288	2.84	-4.53***
	고2	260	3.27	
	계	548	3.06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2.92	2.46*
	비 분쟁지역	256	3.15	
	계	548	3.04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4.13	0.71
	보통	457	4.01	
	부유한 편	20	4.10	
	계	548	4.03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3.97	0.74
	보통	307	4.06	
	잘하는 편	67	4.01	
	계	548	4.03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2.89	-1.76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3.09	
	계	548	3.00	
환경수업 유무	유	153	2.96	-2.73
	무	395	3.25	
	계	548	3.11	

*p< .05 *** p< .001

오염방지 혜택 지역에 따른 차이와 위락시설주변 지역 주민 피해 정도 인식은 관련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시설 여건에 따른 피해 차이 인식은 Table 10과 같이 지역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분쟁 지역 학생의 인식이 높았다.

선진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Table 11과 같이 성별과 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 고2학생의 인식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은 특히 성별, 학년별, 지역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4 참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도가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여자는 선

Table 9. Recognition on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al damage depending to political and economical power

구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3.16
	여	275	2.93
	계	548	3.05
학년	중3	288	2.84
	고2	260	3.27
	계	548	3.06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2.92
	비 분쟁지역	256	3.15
	계	548	3.04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3.15
	보통	457	2.98
	부유한 편	20	2.60
	계	548	2.99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3.10
	보통	307	2.93
	잘하는 편	67	2.96
	계	548	2.99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2.89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3.09
	계	548	3.00
환경수업 유무	유	153	2.96
	무	395	3.25
	계	548	3.1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10. Recognition on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al damage depending to working conditions and facilities

구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3.35
	여	275	3.21
	계	548	3.28
학년	중3	288	3.32
	고2	260	3.24
	계	548	3.28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3.36
	비 분쟁지역	256	3.19
	계	548	3.28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3.11
	보통	457	3.30
	부유한 편	20	3.50
	계	548	3.28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3.37
	보통	307	3.25
	잘하는 편	67	3.16
	계	548	3.28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3.34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3.26
	계	548	3.30
환경수업 유무	유	153	3.30
	무	395	3.23
	계	548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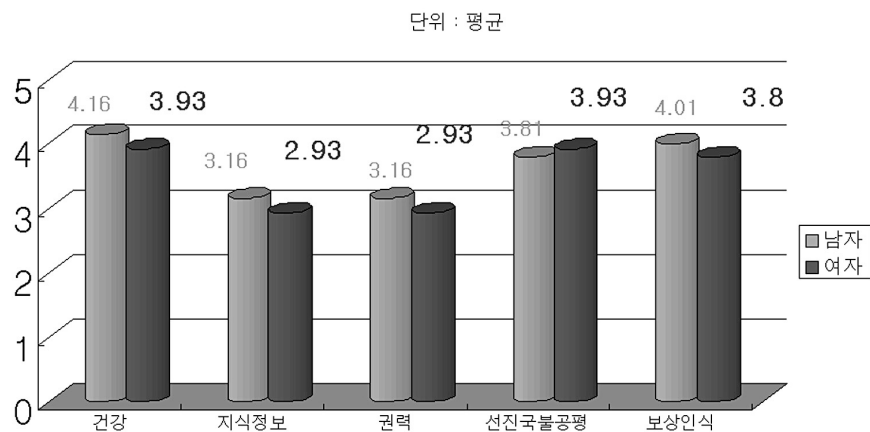
* $p < .05$ 

Fig. 4. Recognition on the environmental problem from a viewpoint of environmental justice

Table 11. Recognition on the unfair action of developed contry

구 분		빈도	평균	F(t)값 D
성별	남	273	3.81	-1.26*
	여	275	3.93	
	계	548	3.87	
학년	중3	288	3.79	-1.80*
	고2	260	3.96	
	계	548	3.88	
지역특성	분쟁지역	292	4.00	2.89
	비 분쟁지역	256	3.72	
	계	548	3.86	
가정형편	어려운 편	71	3.92	0.22
	보통	457	3.86	
	부유한 편	20	4.00	
	계	548	3.87	
학업성적	못하는 편	174	3.86	0.22
	보통	307	3.86	
	잘하는 편	67	3.96	
	계	548	3.87	
환경 지식·정보 제공처	학교수업	125	3.80	-0.79
	대중매체 및 주변사람	423	3.89	
	계	548	3.42	
환경수업 유무	유	153	3.88	0.35
	무	395	3.84	
	계	548	3.86	

* p< 0.5

진국의 불공정 행위에서만 높게 인식했다. 이것은 사회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남학생이 관심이 높아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이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별로는 Fig. 5와 같이 고2학생이 중3학생보다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도가 모든 면에서 높았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 고2학생의 관심이 높고 이해를 잘하고 있어서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특성에 따른 인식에서는 Fig. 6에서와 같이 비 분쟁 지역 학생의 인식이 대체로 높았으며 분쟁 지역 학생은 근무시설 여건에 따른 피해 격차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본 조사의 비 분쟁 지역 학생은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문제에 대해 대중매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분쟁지역 학생들이 근무시설 여건에 따른 피해 격차를 높게 인식하는 것은 농공단지나 읍, 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모님들의 근무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의 환경정의론적 의식이 낮음으로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 의식과 실천방향에 새로운 시각을 형성함으로써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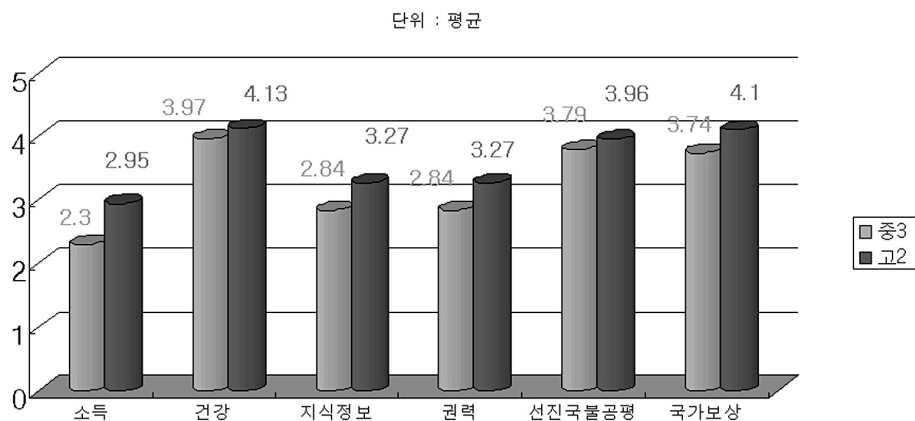


Fig. 5. Recognition on the environmental problem from a viewpoint of environmental justice depending to 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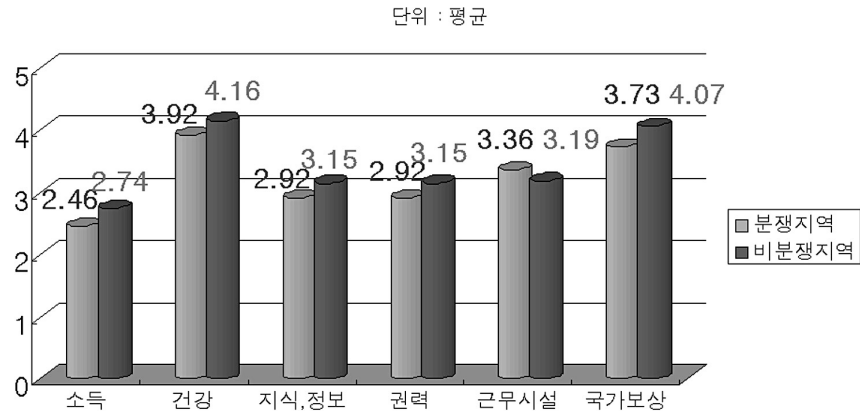


Fig. 6. Recognition on environmental problem from a viewpoint of environmental justice depending to region

에 대한 중·고등 학생의 환경 정의론적 환경의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즉 사회계층간, 빈부간,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노인·어린이·여성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환경 피해를 더 심하게 받고 있는 현실을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관련 변인에 따른 의식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환경정의적 의식을 확산시켜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부정의(不正義)가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청주시 중·고등학생 292명, 괴산군 읍 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6명, 음성군 읍 지역의 중·고등학생 130명, 진천군 면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65명 등 총 548명을 대상으로 2002년 7월 8일~7월 2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학생의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환경 피해 제외자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 환경정의론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인식에 있어서 학생들은 노약자 등 저항력이 약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아주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이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환경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았다.

3.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정의 의식에서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특히 학년, 환경수업 유무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학년별로 볼 때 중3학생이 동물의 생명존중, 미래세대 권리 존중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어 감수성이 풍부한 중3학생들이 여러 동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고2학생보다 커서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수업 유무에서 환경 피해 불공평 인식은 환경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이 높았다. 이것은 환경수업의 내용이 환경관련 사실위주로 꾸며져 있을 뿐 자연 친화적 가치관과 생명 존중의 세계관을 느끼도록 할 내용을 빠뜨림으로써 환경위기에 처한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주제의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해야한다.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환경문제에 내재된 계층 및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4. 관련 변수에 따른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은 특히 성별, 학년별, 지역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도가 대체로 높았다. 이것은 사회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남학생이 관심이 높아 환경문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고2학생이 중3학생보다 환경정의론적 환경문제 인식도가 대체로 높았다. 지역특성에 따라서는 비분쟁지역 학생의 인식도가 대체로 높았는데 이것은 비 분쟁 지역 학생이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문제에 대해 대중매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분쟁지역 학생들이 근무시설 여건에 따른 피해 격차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농공단지나 읍, 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모님들의 근무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충북지역 중·고등학생들은 환경정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환경 피해에 대한 불평등이 소득이나 권력에 따라 일어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론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환경 교과서와 수업에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갈등 상황을 가급적 많이 제시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환경 피해를 보는 시각을 넓혀줌으로써 실천적인 환경지식을 함양하여 환경부정의나 환경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방향제시 등의 능력을 갖추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환경정의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자연과 생명 공동체를 함께 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경, 1997, “해의 환경정의의 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 환경과 생명, 겨울호, 28-36.
- 권해수, 1999,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환경 갈등과 환경정의, 환경정의 시민연대·환경정의 포럼 주관 기념 토론회 자료집, 4.
- 김대희, 1997,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따른 환경교육의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 서우석, 1991, 환경 오염에 의한 사회 경제적 요소의 차별화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환경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장일, 1992, 서릉의 지역별 대기오염도와 소득분포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돈, 1998, 환경 보호 운동의 방향. 대학출판사. p. 298.
- 이상현, 2000, “위천 산업 단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과 환경정의론”, 환경정의 포럼주관 ‘환경정의로 바라본 주요 정책과 환경운동’ 세미나 발표 논문, 22-28.
- 전병성, 1999, “환경정의포럼 토론자료”, 환경정의 시민연대·환경정의포럼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 자료집, 50-56.
- 전재경, 2001, 새만금과 환경부정의, 환경정의시민연대 자료집, 30-34.
- 조명래, 2000, “환경정의론의 재조명: 담론에서 실천으로”, 2000년 겨울호, 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사, 36-48.
- 조명래, 2000, 환경정의와 NGO 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자료집, 48-51.
- 조명래, 2001, 환경정의론의 재조명: 담론에서 실천으로, 우리시대 환경의 과제, 도서출판 환경정의, 52-60.
- 최병두, 1995, “서울 환경문제의 사회 계층적 불평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의발전에 따른 사회균형 연구, 12-37.
- 최병두, 1999, 녹색 사회를 위한 비평, 서울, 한울, 445p.
- 최병두, 1999, 맑스주의적 환경정의론, 환경정의포럼 주관 ‘정의의 눈으로 환경을 본다’, 심포지엄 발표 논문, 63-70.
- 토다 기요시, 1996, 환경정의를 위하여, 김원식 옮김, 창작과 비평사, 330.
- 한면희, 1999, 사례로 본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환경부정의, 환경정의포럼, 10-15.
- 환경정의 포럼, 1999, 창립선언문, 환경정의 시민연대·환경정의 포럼 주관 환경정의 포럼 창립식 및 기념 토론회 자료집.
- 황산성, 1999, 사회정의·환경정의심포지엄, 환경정의 시민연대·환경정의 포럼 주관기념 토론회 자료집, 3.
- Bryant, B, 1995,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Policies, and Solutions*, Washington, D. C.: Island Press.
- Wenz, P, 1988, *Environmental Justi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